

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 (ICI) 한국유치



허 남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2002. 3. 11~14 개최된 제4차 ICI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바 있다. 그때 이명철 부회장의 갑작스런 제의를 받고 따라 나섰지만 내심 싫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아공은 나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내가 비엔나에서 과학관 생활을 하던 시절 북한의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활동과 함께 남아공의 핵물질 관리는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그 후 남아공은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도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충실하고자 그 핵무기를 완전히 해체했기 때문에 핵개발에서 그 투명성을 전 세계인에게 보인 모범적인 국가다. 그런 인연으로 남아공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궁금함과 호기심이 있어 세계동위원소대회에 참가했던 것이다. 케이프타운 시내에 있는 Holiday Inn에서 개최된 제4차 ICI에 30개국에서 260여명이 참석했고 Scientific Programme 및 전시품이 잘 진열되어 유익

한 행사가 되었다. 동 행사기간중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Meeting이 있었는데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이명철, 김종경 교수 및 박경배 박사가 참석하였다.

그 회의에서 차기회의 개최지로 인도 및 화란을 놓고 격론끝에 화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측 대표단은 수석대표(과기부 차관 유희열)와 송우근, 강건기, 이명철, 김종경, 박경배, 정경일, 김영식, 정재민, 허남 등 諸氏가 참석하였고 당시 유희열 차관은 제4차 ICI 조직위원회의 책임자를 만나 한국이 차기회의를 유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

그러나 화란측 사정으로 차기 개최지가 벨기에 브뤼셀로 바뀌어 제5차 ICI가 2005. 4. 25~29 개최하게 되었다.

제1차 ICI는 1995년도에 중국의 개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원자력학회가 주축이 되어 자국제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국제적 홍보 및 판촉목적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제4차 ICI에도 관심을 보였고 그때 중국대표

로 참석한 Chen Dianhua 사무총장과는 친구가 되었다. 그런 인연으로 Chen Dianhua는 CJK Congress가 열릴 때마다 제6차 ICI의 한국유치에 적극적 지지를 표시해 주었다. 그리고 일본동위원소협회의 나가다끼 상무이사 역시 지지의사를 표시해 주고 있으나 공교롭게도 중국과 일본이 제5차 ICI부터는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Steering Committee(IMSC)와 Scientific Committee(SC)에 빠져 있어서 그들의 지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될 형편이 되었다. 반면 이명철 교수는 IMSC 및 SC의 Committee Member이기 때문에 이명철 교수로 하여금 제5차 ICI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인 DR. Carlo R. Chemaly에게 중국과 일본이 IMSC와 SC에 들어가야 됨을 설득하는 중이다.

한편 협회는 Endorsing Institution으로 제5차 ICI에 지정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Belgian Nuclear Society의 회장인 Dr. Henri Bonet의장 외 10명의 IMSC 회원과 SC의 의장인 Dr. Barry J. Allen/오스트리아, Presid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Physics 외 9명의 SC에게 우리협회가 차기 대회를 한국에 유치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던 바 Germaine Heeren, Nigel R. Stevenson, N. Ramamoorthy, Peter Airey로부터 각각 한국을 지지해 주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심지어 제3차 ICI때 캐나다의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인 Nigel R. Stevenson 박사로 부터는 유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조목조목 친절히 자문을 해 주었다. 성공적인 제6차 ICI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를 결성했고 몇 차례 회합을 통해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무위원회(위원장 허남)에서 챙겨나가기로 결정했다.

제5차 ICI의 주제발표 분야와 발표자도 유치국에 걸맞는 위상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중이다.

- 주제발표 분야 및 주제발표자 대상
 - 핵의학 분야 : 이명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종순(방사선보건연구원), 정재민(서울대병원)
 - RI 첨단이용연구 분야 : 노영창(한국원자력연구소) 외 수명
 - RI생산 분야 및 표지화합물 : 박경배(한국원자력연구소), 한현수, 이준식, 박을재, 손광재, 박상현, 신병철, 홍영돈, 김세중
 - 사이크로트론 이용 RI생산 : 김재홍, 안광일(원자력의학원)
 - RT진흥종합계획 : 김종경(한양대학교)
 - 우리나라 면허제도 : 조건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 학계, 연구계, 의료계, 및 산업계 등 20여명의 참가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5차 ICI에 적극 참여를 통해 그동안 ASEM회의나 World Cup 등 한국이 세계대회의 성공적 유치경험을 살려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한다. 현재 전망으로는 제6차 ICI의 한국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유치가 결정될 경우에는 2008. 5. 12 ~ 17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 한국유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이것은 이명철 교수의 외교적 노력과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시장을 우리의 활동무대로 생각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그동안의 이교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난 2004년 CJK Congress에서 중국측이 발표한 의료용 동위원소(Mo-99, I-131, Sr-89등)의 전용생산로(MIPR) 건설사업계획이 아시아 지역의 안정적 RI

공급을 상업적 규모로 건설하는 등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제5차 ICI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동위원소대회와 CJK Congress를 잘 활용하여 시장을 넓혀간다면 우리나라의 RI이용진흥계획은 밝은 전망속에서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KRIA**

